

Japan Weekly Digest

2011. 10. 8. ~ 10. 14.

금주의 이슈

- 동경전력에 최소 1.2조엔 공적자금 투입
- 일본 중국견제를 위해 아세안 해양안보선언
- 일본무역보험, 지열발전플랜트 수출에 무역보험 적용

일본기업전략

- 일본기업의 1/3이 해외생산 확대
- 일본의 첨단소재기업들 시장 창출에 사활 걸어

경제산업성 동향

- 스마트커뮤니티 등 해외사업가능성 조사 채택결과 발표
- 「드림 매칭 프로젝트」 실시

보고서 리뷰

- 『인프라부흥에 민간투자 유치-PFI 활용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기구 설립』 일본경제연구센터, 10월 8일



사단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동경전력에 최소 1.2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배상책임이 있는 동경전력 재건을 위해 최소 1.2조엔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시산결과 발표
- 동경전력은 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와 함께 배상금 지불과 경영 재건을 위한 특별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경비 삭감과 병행하여 재무기반 강화가 중요한 과제
- 일본정부는 동 기구를 통한 우선주 구입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투입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합의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

□ 일본 중국견제를 위해 아세안 해양안보선언

- 일본과 ASEAN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서 8년만에 일본-ASEAN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밝혀짐
- 최근 해양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ASEAN이 해양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임. 여기에는 동일본 대지진재해 경험을 고려하여 일본이 쓰나미예측시스템 등 방재협력을 추진하는 내용도 명기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선언은 남지나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가 있는 동지나해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ASEAN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자제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일본무역보험, 지열발전플랜트 수출에 무역보험 적용

- 일본무역보험(NEXI)은 도시바가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지열발전플랜트에 무역보험을 적용할 방침. 뉴질랜드달러표시 용자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험기간도 16년 이상의 장기안건임
- 일본정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해외사업이 미래 인프라수출의 주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NEXI가 기업들의 해외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앞으로도 무역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기업들의 플랜트 수출을 지원할 방침임

◆ 일본기업전략

□ 일본기업의 1/3이 해외생산 확대

- 일본경제신문사가 10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면한 세계경기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생산이나 조달, 인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글로벌화를 추진할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엔高 등으로 해외생산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응답한 경영자의 비율은 3.1%. 외국인 등 글로벌인재를 확충하겠다는 응답비율은 80%를 넘고 있음
 - 해외생산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경영자중 3년후 해외생산비율을 5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8.2%임
 - 글로벌 공장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채용이나 일본인의 해외주재 등으로 글로벌 인재를 확충하겠다는 응답비율은 85.3%에 달함
 - 반면, 대내적으로는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해외생산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중 국내생산규모를 3년후에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경영자의 비율은 63.1%로 매우 높은 편임..
- 엔高 등으로 공장의 해외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엔高를 활용하여 해외기업의 M&A를 추진하는 기업도 두드러져, 상대기업을 탐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30.2%로 나타남
-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부품이나 원재료의 해외조달을 늘리겠다는 경영자들도 많아, 해외조달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응답비율이 44.6%에 이름

□ 일본의 첨단소재메이커들 용도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에 사활 걸어

-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도레이 등 일본의 화학섬유메이커들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탄소섬유나 수막처리 등 첨단소재의 새로운 용도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엔高와 높은 법인세율 등 소위 6중고하에서 일본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도 한국이나 중국 등의 추격을 받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우위를 높이고 수익력을 확대할 목적에서임
- 첨단소재는 스마트폰이나 에코카, 수처리플랜트 등 많은 제품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을 높여주는데, 탄소섬유나 수막처리, 일렉트로루미네센스 재료, 금속유리 등에서는 일본이 50%-70%의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일본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기업의 존속과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용도를 계속 확대하고 신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것임

◆ 경제산업성 동향

□ 스마트커뮤니티 등 해외사업가능성 조사 채택결과 발표

○ 사업개요

- 스마트커뮤니티 해외사업은 인프라·시스템수출의 스마트커뮤니티 분야 및 향후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스마트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하여 일본기업이 신흥국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가능성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구체적인 국가나 도시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이 사업 수행시 필요한 비즈니스모델(시장 분야나 사업계획)의 조사·검토를 실시
- 작년도 사업에서는 텔리-뫼바이산업대동맥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외에 일본-아세안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스마트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동아시아 1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

○ 금년도 선정사업

- 사우디아라비아(공업단지 스마트환경개선시스템사업), 남미·호주(정보솔루션사업 등), 중국(에너지관리시스템(CEMS)사업), 인도네시아(스마트도로교통관리시스템사업), 태국(3차원스마트지리공간정보시스템사업) 등

○ 향후 예정

- 각 사업의 비즈니스모델을 검토해나감과 동시에 정부간 대화나 출자지원방식 활용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기회 획득노력을 가속화

□ 「드림 매칭 프로젝트」 실시

○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학생과의 「대화세미나」와 학생측에서 본 성장기업의 매력을 전달하는 「매력발신 그랑프리」를 개최

- 본 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구인란이 적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여 성장기업과 졸업자를 연결(matching)을 지원하는 「Dream Matching Project」를 실시. 금년부터는 연결비율을 높이기 위해 성장기업에서 일하는 매력을 대학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실감할 수 있는 「Dream Workstyle Project」를 실시
- 금년 가을부터는 사회 전반에 본 프로젝트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학생과 기업인들에 의한 「대화세미나」와 학생들이 성장기업의 매력을 알리는 「매력발신 그랑프리」를 개최

◆ 보고서 리뷰

『인프라부흥에 민간투자 유치-PFI 활용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기구 설립』

일본경제연구센터, 10월 8일

□ 인프라사업 추진을 위한 신기구 설립 제안

- 본 자료는 동일본 대지진재해 부흥비용이 약 25조엔(향후 10년간)으로 특히 항만, 도로, 수도 등 인프라 비용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신기구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의 중앙정부·지자체 모두 재정제약을 안고 있어 이들 인프라사업의 재원을 전부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증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임

□ 신기구의 기능

- 우선 PFI를 비롯하여 인프라 건설·운영·투자 실무에 정통한 민·관 전문가를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 신기구를 설립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사업제안을 받아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괄 심사함.
- 동 기금으로부터 각 PFI사업에 투자, 현장지원이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함. 인프라 운영에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구에 의한 규제완화도 필요함

□ 기대효과

- 민간자금에 의한 국내 인프라 투자루트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긴급한 과제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에 집중적인 부흥 사업을 통해서 축적되는 경험을 민·관 인재육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펀드 등 투자시장 육성도 기대할 수 있음.
-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프라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큼.

□ 시사점

- 본 자료에서 제시된 제안의 주안점은 민간의 자금도 자금이지만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요체로 한 총체적인 민간의 힘에 두어지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에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점검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인프라부흥에 민간투자 유치-PFI 활용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기구설립』
일본경제연구센터, 10월 8일

*출처:<http://www.jcer.or.jp/report/finance/detail4221.html#report1>

- (2) 『무역투자로 잃어버린 20년 만회-대공황 탈출과 비교하여』
국제무역투자연구소, 10월12일

*출처:<http://www.iti.or.jp/flash147.htm>

- (3) 『초식계는 발란스쉬트 조정의 진화형-최근 다시 일본화 현상』
미즈호종합연구소, 10월13일

*출처:<http://www.mizuho-ri.co.jp/research/today/pdf/rt111012.pdf>

- (4) 『일본회생책』 경제산업연구소, 10월13일

*출처:<http://www.rieti.go.jp/jp/events/bbl/11092101.html>

- (5) 『2012년은 일본재평가의 해』 미즈호종합연구소, 10월13일

*출처:<http://www.mizuho-ri.co.jp/mente.html>

- (6)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난토(南都)경제센터, 10월14일

*출처:<http://www.nantoeri.or.jp/pdf/c004/1110topics.pdf>